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2일

CUOMO 주지사, 587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기 계양을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Queens의 Belle Harbor에서 발생한 American Airlines 587기 추락 사고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2일에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계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587기 추락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일손을 멈추겠습니다" "비극적 사건으로 사망한 265명의 남녀와 어린이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추모의 기도를 올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테러범의 공격이 있던 지 1개월 후, 587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Santo Domingo의 Las Americas 국제 공항으로 가는 중 John F. Kennedy 국제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Belle Harbor의 거주구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에어버스 A300-600 항공기에 탑승한 260명의 승객 전원과 지상에 있었던 5명의 주민이 사망하여 미국 지상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중 두 번째로 참담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뉴욕을 출발하여 Santo Domingo로 돌아가는 첫 번째 587기는 특히 명절에 많은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대중 문화에서 널리 알려진 만원 항공기는 미국의 도미니카인 인구 증가를 상징하며 많은 이민자들이 고향과 관계를 지속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상징하였습니다. American Airlines는 항공기 노선을 취소했으며 그 후 3년 이내에 모든 서비스에서 에어버스 A300-600 항공기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도미니카의 예술가 Freddy Rodríguez와 Situ Studio가 설계한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는 Queens의 Rockaway Park에 세워져 있습니다. 뉴욕주의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HESC)이 수여하는 장학금도 뉴욕주 대학 학비로 사용되도록 희생자의 자녀, 배우자, 재정적 부양가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